

'보성군·하동군' 손잡고 차산업 발전 공동 대응 나선다



대한민국 차(茶)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보성군과 하동군이 한국 차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차 소비촉진 및 2022년 보성·하동 엑스포 상생협력 방안 협의 차나무 경관직불금 지원 선정 필요...국가적 지원 절실 공감대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과 2022년에 개최되는 보성·하동 엑스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보성-하동 라이브 커머스 행사 관람, 보성 차산업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양 지자체가 손을 잡고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건강음료인 차를 전 국민이 자주 마실 수 있도록 차의 효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차산업 진흥을 위해 차나무가 경관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농식품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보성군과 하동군은 차밭 대부분이 비탈지에 있어 수확부터 가공까지 전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매년 300ha의 차밭이 사라지고 있는 실

정이다. 차나무가 경관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 전통 차산업 현장을 보존해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관광자원으로써 농업 외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장은 2022년에 개최하는 보성·하동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관을 상호 개설하고 보성-하동을 잇는 티로드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민국 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보성군과 하동군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한국 차를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인이 한국의 차를 통해 보성과 하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2022년 제10회 보성세계차 엑스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 보성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 이달 24일부터 8월까지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라이브커머스로 차와 농특산물 판매에 코로나19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활력을 찾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도올 김용옥 순천에서 정유왜란을 말하다

새로운 전쟁 개념으로 보는 정유왜란

순천시는 오는 28일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하여 정유재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진행한다. 28일 오후 3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시민들에게 정유재란 역사에 대해 알리고자 마련됐다. '도올, 순천에서 정유왜란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은 정유재란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조선

을 지켜 온 호남민들의 호국정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특히, 도올 선생은 정유재란을 재(再)침입이 아닌 임진왜란과 별개의 전쟁으로 해석하여, 전쟁 당시 마지막 격전지였던 순천에서 그의 말을 되새길 예정이다. 강연은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방송 촬영으로도 진행된다. 방송은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 50분부터 여수

MBC에서 방영되며, 방송 이후에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현장강연은 무료로 선착순 7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참가신청은 순천시 문화예술과(061-749-6676)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정유재란의 올바른 개념에 대해 배우고,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광양시는 학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위기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가 3명 이하(만 18세 이상 자녀 제외) ▶가정 구성원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전력이 없는 가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아동관리보장원, 전라남도동부가정위탁센터(☎061-744-1964)나 광양시아동친화도사(☎061-797-2977)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심종섭기자

고흥군, '스마트 안심터치' 500대 지원

고흥군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내손안의 지킴이 '스마트 안심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심 터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거치대)로,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버튼(3-5초간)을 누르면 비상메시지·위치정보·현장상황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 생활망 구축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에 스마트 안심터치를 500대를

지원한다. 또한, 고흥군은 아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여성 안심 지킴이집(21개소),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23개소)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각종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 모자가정 등은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팀(☎ 830-5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취재본부

여수시, 비만탈출 프로젝트...시민 건강한 삶 위해 '출발'

민간 체육시설 12개소와 협약 고도비만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체지방 감량 따라 이용료 환급

코로나19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보건 의료적 이슈는 '체중증가와 비만'이다. 코로나19로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고도비만자를 위한 비만탈출 프로젝트 운영에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여수시 비만유병률은 40.1%로 전국 35.2%, 전남 37%보다 한층 높게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 달 민간 체육시설 12개소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4월부터 20세 이상 60세 미만 BMI 30이상 고도비만자를 대상으로 운동, 영양, 대사 증후군 관리를 제공하는 생활터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체육시설에서 3개월간 운동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체성분 분석 및 혈당·중성지방 등 5종의 기초진단검사, 식생활 태도 개선 1:1 상담, 워크숍 챌리지 등 개인별 건강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흡연자는 금연사업과 연계해 금연을 유도하며 비만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유 상담 등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체지방을 감



량 정도에 따라 30%에서 최대 70%까지 체육시설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4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60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체육시설 고객 유치를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고도비만자의 비만 관리와 동기 유발로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여수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체육시설과 MOU 체결을 하여 헬스에서부터 점핑운동, 파워요가, 수영, 복싱까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운동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프로그램 참여자 김OO(만 25세)는 "매번 운동할 때마다 보건소로 방문할 필요 없이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며,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운동을 시작해야지 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크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여수시보건소 사업 담당자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패턴은 물론 보건소 중심 집단 운동 프로그램도 비대면이나 생활터 중심 개별 운동 지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확대나 비만 전 단계(또는 일반 시민)를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9월에 있을 2기 비만탈출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